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09. 4. 2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 김 종 철

사무관 : 박 종 민

전 화 : 500-1787

쪽 수 : 6P

별첨자료 : 있 음

이 자료는 2009년 4월 27일(월) 18: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으로 열어갑니다

- 물 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

□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월) 15:00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환경부(장관: 이만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되는 살리기 사업의 총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에서 5월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 첫째,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한다.
 -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셋째, 중점·핵심관리구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1,411km),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 또한, 4대강 사업은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부(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다.
-

-
- 국토부 外 나머지 3개 부처의 4대강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강(江)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 구성, 좋은 물 달성 목표 조정(당초 '15년 85% → '12년 90%),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문화재 보호대책과 함께 회복과 창조, 소통의 3대 추진전략으로 4대강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금수강村」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 특히, 관계 부처들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 우선 지역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하였다.
-

-
- 특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립하기 위하여 4대강과 관련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하기로 하였다.
 - 이어 녹색위는 4대강 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하였다.
 -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가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4대 디자인 목표로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대강 물길 따라 농촌희망이 피어납니다.

- 농식품부, 4대강 살리기와 연계 금수강촌 프로젝트 시행

- 4대강 인근 하천 주변에 테마가 있는 명품마을을 조성하는 '금수강村'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개선, 수량확보 및 생태계회복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4대강 살리기'로 개설되는 강변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도시와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맑은 물과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활용하여 주변 농어촌을 명품마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저수지 독을 높이고, 다목적 용수 공급원으로 저수지를 지속개발하며, 산림정비와 산림댐 설치를 통해 맑은 물 공급 능력을 제고한다.
 - 아울러, 농업분야의 오염물질 유입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 저수지에는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양배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향토음식점 및 지역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주변부지에 승마시설 설치도 검토된다.
 -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을 위해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을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을 확대(10→20종) 한다.

- 4대강 인근부터 배마을, 러브레터 마을 등 테마가 있는 명품마을 조성이 의욕적으로 추진된다.
 - 강촌의 특산품과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테마와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농촌자원을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복합산업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 예를 들면, 지역 특산물이 포도인 4대강변 마을에, 폐기되는 우체통을 활용한 “리브레터 마을”을 디자인하고 포도/와인산업 발전방안을 연계한다면, 도시민 방문을 늘리고 포도농업의 복합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 또한, 강변에 심은 경관작물 개화시기에 맞춰 강촌 재즈페스티벌, 사진·그림 전시회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지역마케팅 활동이 추가되면 도시민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4대강 주변지역 중 개발이 진행 중인 영산강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新농업모델 제시도 시도된다.
 - 우선 정보통신(IT), 생명과학(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 新농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 간척지에 첨단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농산물의 수출 전진 기지화하는 구상도 담겨 있다.
 - 이러한 새로운 농업모델 이끌 다양한 분야(농업, IT, BT, 예술, 산업 디자인, 지역개발 등)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 귀농자 등 젊은 층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영농기술·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발여건이 유리한 4대강 주변마을을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정착되면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갈 방침이다.

4대강 물길 따라 흐르는 농촌희망

금수강촌 만들기

2009. 4. 27

< 목 차 >

- I. 4대강 살리기 성공적 뒷받침 /1
- II.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3

 농림수산식품부

I. 4대강 살리기 성공적 뒷받침

1. 4대강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등 종합지원

□ (수량확보) 통합적 산림정비 및 산림댐 설치, 저수지 독 높임 등으로 수량확보, 토사유입 차단, 홍수조절 등에 기여

* 4대강 10km 이내 산림 토사유출 : 연 494만^m(여의도를 1.7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양)

○ 물 부족에 대비하고 다양한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

- 4대강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독 높임(96개소, 240백만^m 추가 확보)

* 소양강 댐(저수량 29억 ^m)의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 : 255백만^m/연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 저수지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정에너지 생산

* '09까지 농업용저수지 15개소에 설치하여 연간 34천MWh 전력 생산중 (청양군 인구 규모인 14천 가구 전력 공급 가능량)

□ (수질개선) 4대강 유역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우선 확대하여 화학비료 등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량 저감

○ '12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08년 대비 21% 저감

- ('08) 311kg/ha → ('12) 245 (△66kg, △21%)

* 물고기 입식에 의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09, 3개소 13.4ha)

○ 가축분뇨처리시설 집중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녹색에너지원으로 활용

- 공동자원화 시설 : ('08까지) 20개소 → ('11) 70개소 (증 50)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 '10년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 (생태계 회복) 토속어류 방류 등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 지원

-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은 종묘 생산·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류 추진 (10종→20종)
 - 종묘 생산·관리 시설을 도시민과 어린이 체험교육 시설로 활용

2. 양배수장·용수로 등의 휴양 자원화 및 친환경적 개발

□ 4대강 살리기로 정비되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은 자연친화적인 체험·휴양시설로도 활용되도록 개발, 지역 명소화

- 저수지 : 유희부지에 승마시설, 특색 있는 시설(LED전등 등) 설치, 경관작물 재배 및 산책용 데크 설치 등으로 관광 자원화
- 양·배수장 :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카페·향토음식점·휴게소·지역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농업기반시설 주변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심의중)

□ 농업용 수로는 콘크리트 위주에서 생태환경 유지와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

- 구조물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양서류 이동통로 설치 등 생태 고려

3.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경작자 지원

□ (농지임대알선 등)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차 알선(농지은행) 및 영농자금 지원

- 농지은행에서 수탁한 농지 임대 우선순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 받은 경작자를 포함 (지침 개정)
- 기존에 대출받은 영농자금(농축산경영자금)은 상환기한을 연장

II.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 4대강 주변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을에 농어촌개발 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미래 금수강촌의 모델로 제시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테마와 개발방향 설정
-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
 - * 마을종합개발, 식품클러스터, 체험·휴양 프로그램 등
- 마을개발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 (테마설정) 4대강별 이미지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원, 특산품 등을 감안한 테마와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매력있는 마을모델 개발

(예시) ▪ 교류, 만남을 테마로 「러브레터마을」 조성 : 폐기되는 우체통 ('09년 1,083개)을 활용하여 마을 디자인

▪ 맛과 멋, 풍요를 테마로 하여, 맛있고, 멋있는 「배마을」 조성 : 지역 특산품인 먹는 배와 감척대상 배('08~'09년 4,358척)를 활용하여 디자인

□ (종합지원) 생활환경 개선,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체험·관광사업 등을 종합·연계 지원하여 활력있는 마을로 발전 유도

○ (생활환경개선) 지역주민의 생활권(마을-읍·면-중심도시)을 고려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

- 쾌적한 생활·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에너지를 적극 활용

* 상·하수도 설치, 마을 진입로·안길 정비,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주택 개량 등

* 목재펠릿,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

○ (농어촌 복합산업화) 마을의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농어촌 소득원으로 개발

- 신활력·향토산업·지역특화품목지원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을 연계하여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한 복합산업화 기반 구축
- 하천 주변 경관림 조성과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벨트를 형성하여 체험·휴양산업 자원으로 활용
 - 마을과 주변지역 경관계획 수립 및 주민의 경관개선 활동 참여 유도
 - 개화시기에 맞춰 강촌마을 재즈페스티벌, 사진·그림 전시회 등 특색 있는 이벤트 개최 및 브랜드화
- 명품마을을 거점으로 인근 향토음식, 전통·문화자원, 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체험·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전개

○ (새로운 농업모델 제시) 4대강 부근 중 영산강 주변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농업모델로 육성

- IT, BT 등 첨단기술, 경관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복합농업단지 조성
 - * 네덜란드 쿠켄호프 공원(32ha)의 경우, 3월하순~5월중순(2개월)까지 개장,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 입장료 수입만 연간 160억원 이상
- 첨단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으로 수출 전진기지화
 - *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 산이 2-1공구(713ha)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준비중
- 새로운 농업모델 단지 내 마을은 귀농인력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뉴타운 개념으로 개발

□ (기업투자 유도) 마을개발 및 지역 명소화에 기업 참여 유도

- 마을개발 투자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예시) 기업이 조성한 농어촌 마을을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활용하면서 상품 광고 병행
- 기업 등이 마을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마을개발 주체 : (현행)시·군, 농어촌공사 → (개선)민간업체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 초기단계는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정착 되면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전환
 - 선도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을 선정·추진
 - 마을 디자인을 위해 예술가, 건축가, 농업 및 지역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 사업이 정착되면 지자체 주도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 정부는 간접지원
 - 지자체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 중앙정부 : 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 수산식품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새로운 농어촌 건설의 계기로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력 있는 농어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